

페루 마추픽추 시간당 방문 인원 제한된다



페루 대표 관광지인 마추픽추 역사보호지구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방문 인원이 제한된다. 페루관광청에 따르면 시간당 마추픽추 방문 인원은 일출 시간대인 오전 6~8시가 800명, 이후 시간대는 600명 안팎으로 제한된다. 인근 와이나픽추를 함께 방문하거나 트레킹으로 마추픽추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시간당 방문 인원이 더 줄어든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추픽추 입장 시간은 최대 4시간이며, 입장권에 표시된 방문 시간대 이외 방문이나 재방문은 금지된다. 입장권은 웹사이트(www.machupicchu.gob.pe)에서 살 수 있다. 페루관광청은 또 환경 보호를 위해 마추픽추를 비롯한 페루 전역의 문화유산과 주립박물관에 대해 일회용 용기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마추픽추는 1450년경 해발 2천430m에 세워진 잉카의 유적지로, 지난해 월드 트래블 어워드(WTA)에서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서 선정됐다.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의 주요 행사 3선



미국 샌프란시스코관광청은 미국프로야구(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홈구장인 오라클 파크(Oracle Park)에서 올해 열리는 행사 중 3개를 엄선해 소개했다. 오는 2월 9일에는 'KNBR 자이언츠 팬 페스트'가 열린다. 스포츠 라디오 방송국인 KNBR이 후원하는 행사로 자이언츠 선수들과의

마카오관광청, 돼지해 축하 퍼레이드 개최한다

마카오정부관광청이 2월 7일과 10일 마카오에서 돼지해를 축하하는 '음력설 퍼레이드'를 개최한다. 공연단의 흥겨운 춤사위가 펼쳐지는 퍼레이드 행렬은 7일 오후 8시 사이완 호수 광장에서 시작돼 마카오 과학관까지 이어진다. 오후 9시 45분부터 15분간 마카오타워 인근 해안에서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진행된다. 퍼레이드에 앞서 사이완 호수 광장에서는 흥겨운 퍼포먼스와 공연도 열린다. 퍼레이드는 10일에도 개최된다. 행렬은 오후 8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마카오반도 북쪽 페타인 북로에서 이아오혼 시장 공원까지 이어진다. 오후 8시 15분부터 이아오혼 시장 공원에서는 문화 공연이 진행된다.



질의응답, 사인회, 사진 촬영, 클럽하우스 투어 등 일정으로 꾸며진다. 누구나 사전 등록 없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6월 12일에는 '자이언츠 LGBT(성 소수자) 나이트'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 시작 전 2시간 동안 열린다. LGBT 커뮤니티의 흥겨운 퍼포먼스와 퍼레이드가 이어진다. 야구 관람권이 포함된 패키지를 구매하면 한정판 티셔츠가 제공된다. 티켓 수익의 일부는 LGBT 비영리 단체에 기부된다. 9월 8일에는 알래스카항공 주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레이스'가 개최된다. 달리기 코스는 하프, 10km, 5km 등이 있다. 하프 마라톤은 오라클 파크에서 출발해 피셔맨스워프를 지나 금문교까지 갔다 오는 코스에서 진행된다. 참가자에게 10주년 기념 티셔츠가 제공되고 오라클 파크 근처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홈구장은 지난 10일 AT&T 파크에서 오라클 파크로 이름이 바뀌었다.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은 샌프란시스코 구단과 구장 명명권(Naming Rights) 계약을 맺고 2038년까지 오라클 파크란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다.

'용평에서 만나는 캐나다' 사진전



캐나다관광청이 2월 28일까지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 호텔의 레스토랑 더 샬레 입구에서 '용평에서 만나는 캐나다' 사진전을 개최한다. 앨버타주 정부사무소, 용평리조트와 함께 여는 이번 사진전에서는 드라마 '도깨비'의 무대인 퀘벡시티, 오로라 관측 명소인 옐로나이프, 다채로운 액티비티가 가능한 캐나다인 로키 등 캐나다의 주요 여행 명소 사진 25점을 볼 수 있다. 사진 옆에 부착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으면 지역별 추천 여행일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캐나다관광청은 사진전 기간에 캐나다 캘거리 왕복항공권(1장), 밴프

3박 숙박권, 주요 명소 입장권이 포함된 여행권을 1명에게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진전 장소에 있는 캐나다관광청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 후 본인 SNS에 전체공개로 올리고, 용평리조트 블로그 이벤트 페이지(<http://blog.yongpyong.co.kr/221430936151>)에 해당 게시물의 URL, 연락처, 이메일을 댓글로 남기면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다. 당첨자는 3월 15일 발표된다.

필리핀 시아르가오·보라카이·팔라완, 아시아 5대 섬에 선정

보라카이, 팔라완, 시아르가오 등 필리핀의 섬 3개가 미국 여행잡지 콘데 나스트 트래블러 독자가 뽑은 '2018년 아시아 최고 5대 섬'에 선정됐다. 콘데 나스트 트래블러는 매년 독자 투표를 통해 세계 최고 관광지, 섬, 도시 등을 선정한다. 이번 투표에는 독자 42만9천 명이 참여했다.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800km 떨어진 시아르가오는 에메랄드빛 바다에 둘러싸인 해양스포츠의 낙원이다. '필리핀의 서핑 수도'로도 불린다. 하바기트라 불리는 계절풍이 부는 8~11월이 서핑에 가장 좋은 시기로 알려져 있다. 호핑 투어도 즐길 수 있다. 아시아 최고 5대 섬에는 이밖에 말레이시아 랑카위와 인도네시아 발리가 이름을 올렸다.



스위스에서 다채로운 체험 여행



스위스관광청이 연인들의 데이트, 가족 여행 등을 위해 스위스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소개했다.

체르마트의 키친 엠티 르마트의 레스토랑 주방에서 요리와 음식을 체험할 수 있다. 최대 4명이 참가해 네 가지 메뉴를 지역 와인과 함께 맛볼 수 있다. 숙소~식당 택시 서비스, 깜짝 선물 증정도 포함된다. 참가비는 189스위스프랑(약 21만원).

루체른의 막스 쇼콜라티에 초콜릿 아틀리에를 방문해 초콜릿 장인의 작업 모습을 보고 트뤼프, 스페셜리티를 맛볼 수 있다. 초콜릿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참가비는 100스위스프랑(약 11만원)부터.

로잔의 카테일 클래스 5성급 호텔 보리바주(Beau-Rivage)의 바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는 니만의 카테일을 만들 수 있다. 참가비는 150스위스프랑(약 17만원)부터.

에멘탈의 즐브릭 베이커리 빵을 반죽하고 굽는 과정을 관찰하고 맛 좋은 페이스트리와 초콜릿을 맛볼 수 있다. 이곳에서 아침을 즐긴 뒤 엠메(Emme)강을 따라 산책하거나 구름저대로 하이킹을 떠날 수 있다. 일요일 브런치 요금은 성인 기준 27스위스프랑(약 3만원). www.baecckerforum.ch

줄로투른의 유라 커피 월드 에스프레소 기계로 유명한 유라(Jura)가 운영하는 커피 견학 코스. 클래식 커피 한 잔, 홈메이드 브레첼리가 포함된다. 커피 라운지에서는 다양한 에스프레소 베이스 커피와 퓨어 오리진 커피, 알코올이 첨가된 커피 등을 맛볼 수 있다. 참가비는 성인 9스위스프랑(약 1만원), 만 15세 이하 무료. www.juraworld.com



제주항공우주호텔, 제주살기 패키지 출시



글래드 호텔이 운영하는 제주항공우주호텔이 제주살이를 경험할 수 있는 '제주살기' 패키지를 2월 28일까지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산방산, 곳자왈 또는 오설록 녹차밭이 보이는 객실을 이용하면서 제주 살기를 체험하는 상품이다. 1박당 가격은 7~14박 이용 시 6만원, 15~30박 5만5천원, 30박 이상 5만원이다. 1주일 살기 시 오설록 티 뮤지엄 녹차아이스크림 교환권 2장, 보름 살기 시 녹차아이스크림 교환권 2장과 카멜리아힐 입장권 2장, 한 달 살기 시 보름 살기 혜택에 치킨 교환권 1장이 추가된다. 렌터카 무료 서비스(자차 보험료 별도), 제주 관광지 최대 50% 할인 혜택,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2만원 할인권 등이 제공된다. ☎ 064-747-4900, www.ora.oresort.com

포시즌스, 프라이빗 제트 투어 2020년 상품 공개

포시즌스 호텔의 초호화 여행 상품 '포시즌스 프라이빗 제트 투어'의 2020년 상품이 공개됐다. 2020년 투어 상품으로는 '월드 오브 어드벤처', '타임리스 인카운터', '인터내셔널 인트리그' 등이 있다. '월드 오브 어드벤처'는 2년 연속 전석 매진을 기록한 인기 투어다. 내년 6월 3일부터 26일까지 '24일간의 세계 일주'를 주제로 시애틀, 교토, 세이셸, 갈라파고스 등 3대륙 9개 도시를 여행한다. '타임리스 인카운터'는 3월 12일부터 4월 4일까지 하와이, 보라보라, 발리, 시드니, 프라하 등 4대륙 9개 도시를 여행하는 일정이다. '인터내셔널 인트리그'는 2월 15일부터 3월 9일까지 교토, 호이안, 몰디브, 세렌게티, 부다페스트 등 3대륙 9개 도시를 돌아보는 상품이다. 프라이빗 제트 투어는 최고급 호텔형 여객기 '포시즌스 프라이빗 제트'를 타고 전 세계 포시즌스 호텔에 투숙하며 여행하는 패키지다. 1인당 가격은 항공료, 현지 교통비, 관광, 식사, 숙박 등을 포함해 1억5천500만원 선이다. www.fourseasons.com/privatejet



서울드래곤시티, '세상에 바쁜 아빠는 없다' 패키지



서울드래곤시티는 아빠가 가족에게 전하는 1박 2일의 새해 및 방학 선물 콘셉트의 '세상에 바쁜 아빠는 없다' 패키지를 2월 말까지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전망 좋은 객실 이용, 스파 트리트먼트 할인, 특별 레터링이 담긴 마카롱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자녀에게는 어린이왕자 컬러링 세트, 서울드래곤시티의 마스코트인 드라코 인형을 선물로 제공한다. 체력장, 수영장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춘 피트니스도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서울드래곤시티 4개 호텔별로 다르다. ☎ 02-2223-7000, www.seouldragoncity.com

경주 코오롱호텔, '베리 스위트 밸런타인' 프로모션

경주 코오롱호텔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연인과 달콤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베리 스위트 밸런타인' 프로모션을 2월 말까지 시행한다. 토함산을 감상할 수 있는 호텔 3층의 레스토랑 '파노라마'에서 스테이크 코스 요리와 제철 딸기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스테이크 코스는 셰프의 스페셜 수프, 안심 스테이크, 타라미수와 커피로 구성된다. 가격은 2만8천원. 딸기에 초콜릿을 입힌 딸기 초콜릿 톱은 3월 31일까지 5개당 5천원(이상 세금 포함)에 판매한다.



아난티 남해, 키즈 윈터 패키지



아난티 남해가 자녀와 함께 겨울 휴가를 보낼 수 있는 '키즈 윈터 패키지'를 2월 말까지 선보인다. 패키지는 스위트룸 또는 그랜드 빌라 객실 1박에 조식 뷔페(성인 2인, 소인 1인), 워터 하우스 스파 이용권으로 구성된다. 복합문화공간 이터널 제너에서 핫초코 한 잔이 제공되고, 아난티 곰 인형이 증정된다. 예약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남해 양떼목장 가족 입장권도 제공한다. 가격은 주중 스위트룸 기준 29만2천원부터(세금 포함). ☎ 055-860-0555

파크하얏트서울, 낭만적인 밸런타인 식음 프로모션

파크하얏트서울의 레스토랑들이 밸런타인데이인 2월 14일에 낭만적인 식음 메뉴를 선보인다. 코너스톤은 5코스의 이탈리아 디너 세트를 낸다. 스파클링 와인이 포함되어 초콜릿 선물 한 세트가 증정된다. 오후 6~10시 30분에 이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1인당 16만5천원. 더라운지는 샴페인이 포함된 5코스의 모던 한식 디너 세트를 준비한다. 오후 5시 30분~9시 30분에 이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1인당 14만원이다. 프리미엄 바이닐 바인 더 팀버하우스는 초콜릿을 주제로 한 칵테일 3종(9만원), 초밥과 생선회를 포함한 스시 오마카세(주방장 특선, 18만원), 맥켈란 위스키 5종 중 한 병과 디저트 박스로 구성된 맥켈란 세트(42만원부터, 이상 부가세 포함, 봉사료 없음)를 마련한다.



로열브루나이항공, 핫 세일 프로모션



로열브루나이항공이 브루나이를 비롯해 다양한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 특가 요금을 3월 7일까지 선보인다. 항공권 유효기간은 8월 31일까지. 프로모션 기간 왕복 항공권 가격은 인천~브루나이 37만4천500원부터다. 인천에서 출발해 브루나이를 경유하는 장거리 왕복 항공권은 호주 멜버른 59만5천500원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55만6천700원부터, 영국 런던은 66만8천700원부터 살 수 있다. 브루나이를 경유하는 동남아 노선 왕복 항공권은 싱가포르 37만4천600원부터, 발리 36만500원부터, 코타키나발루 34만3300원부터, 쿠칭(말레이시아) 38만3천200원부터, 쿠알라룸푸르는 34만3천300원부터다.

☎ 02-777-7556, www.flyroyalbrunei.com/south-korea/ko/

에미레이트항공, '마이 에미레이트 패스' 혜택 확대

에미레이트항공이 아랍에미리트 여행객을 위해 '마이 에미레이트 패스'(My Emirates Pass)의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 '마이 에미레이트 패스'는 오는 3월 31일까지 두바이를 여행하거나 경유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탑승권과 신분증만 제시하면 아랍에미리트 전역의 주요 명소와 여행지, 각종 레스토랑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에미레이트항공에 따르면 에미레이트항공 승객은 올해 약 500여 곳의 레스토랑, 호텔 식당, 골프 클럽, 테마파크, 스파 등에서 30~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두바이에서 꼭 가봐야 하는 명소로 꼽히는 두바이 파크 앤 리조트와 IMG 월드 오브 어드벤처도 할인 혜택에 포함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됐다. '마이 에미레이트 패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미레이트항공 홈페이지(www.emirates.com/myemiratespa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항공,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 진행



베트남항공이 인천에서 출발해 베트남을 경유, 프랑크푸르트, 런던, 멜버른, 시드니, 방콕 등으로 향하는 항공권의 일반석 항공권을 2월 말까지 특가로 판매한다. 특가 항공권 유효기간은 4월 1일~7월 31일. 왕복 항공권 가격은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포함해 프랑크푸르트 71만9천900원부터, 런던 78만4천500원부터, 멜버른 75만7천800원부터, 시드니 75만7천200원부터, 방콕은 31만2천800원부터다. 특가 항공권은 베트남항공 웹사이트(www.vietnamairlines.com) 또는 여행사를 통해 살 수 있다.

스타얼라이언스, 중국 광저우공항에 전용 라운지 신설



항공사 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가 올해 안에 중국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에 전용 라운지를 신설한다. 아시아나항공, 에어차이나, 전일본공수(ANA), 이집트항공, 에티오피아항공, 에바항공, 선전항공, 싱가포르항공, 터키항공, 타이항공 등 광저우공항에 취항하는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스타얼라이언스 골드 회원, 일등석과 비즈니스석 고객은 전 세계 1천여 개에 달하는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스타얼라이언스 전용 라운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LA, 나고야, 파리,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로마 등 7곳의 공항에 있다. 스타얼라이언스 공항 라운지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www.staralliance.com/loung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델타항공, 네 가지 좌석 유형 장착 항공기 선보인다



델타항공이 델타 원 스위트, 델타 프리미엄 셀렉트, 델타 컴포트 플러스, 메인 캐빈 등 4가지 좌석 유형을 갖춘 보잉 777 항공기를 선보인다. 델타항공은 상용 또는 레저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더 다양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좌석 유형을 다채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네 가지 유형의 좌석 외에도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은은한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무료 모바일 문자 서비스 등을 장착했다. 새로 단장한 보잉 777기종을 도입하는 노선은 인천~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을 비롯해 나리타~애틀랜타, 하네다~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파리~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파리~애틀랜타, 시드니~로스앤젤레스 등이다.

유레일패스 이용 국가 31개로 늘었다

올해 유레일 글로벌패스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가 31개국으로 늘었다. 유레일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패스 이용 국가에 영국, 마케도니아, 리투아니아가 새로 포함됐다. 유럽 여행의 관문 도시인 런던에서 파리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여행자는 유로스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레일은 또 올해부터 패스 종류를 글로벌패스, 원컨트리패스 등 2가지로 줄였다. 2~4개 국가를 지정해 이용하던 셀렉트패스는 없었다. 글로벌패스의 가격을 최대 37% 인하했고, 원컨트리패스도 가격을 내렸다. 또 노년층 여행 증가에 따라 60세 이상 여행자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시니어패스를 새로 출시했다. 기존 일등석만 이용할 수 있었던 만 28~59세 성인은 올해부터 이등석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김소라 유레일 한국홍보사무소 과장은 "올해부터 글로벌패스의 가격이 기존 셀렉트패스 수준으로 인하여 여행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국가를 여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린세스 크루즈 로열 프린세스 호 운항 재개



프린세스 크루즈의 대표 선박인 로열 프린세스 호가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오는 3월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운항을 재개한다. 3천560명이 승선할 수 있는 14만급의 로열 프린세스 호는 프린세스 크루즈가 보유한 선박 17척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선내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스파, 생방송 스튜디오, 성인 전용 생추어리 등을 갖추고 있다. 로열 프린세스 호는 3월 23일부터 4월 말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하는 다양한 미 서부 항해 일정을 소화한다. 5~9월 캐나다 밴쿠버와 알래스카를 잇는 7일 일정 노선에 투입된 이후 다시 미국 서부 크루즈 일정에 배치된다.